

사적이전과 계층에 관한 분석

정의신*

1998년도 경제위기의 경험과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은 사회적안전망에 의존해 온 한국 대다수 가구와 개인에게 새로운 방식의 위기대응 전략을 요구하였다. 사적이전에 대한 연구는 장차 확대될 사회적안전망의 설계와 정착을 결정짓는 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범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사적이전과 계층에 대한 이원로지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사적이전의 두 형태인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 이전 사이에는 상호 상호보완과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 소득의 영향도 그 항목에 따라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중산층 가운데에서도 중상층과 중하층 간에는 각각 사적이전에 미치는 소득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중상층은 금융소득과 같이 미래소비를 대비한 소득 비중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중하층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이 사적이전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사적이전을 현금·현물이전 형태와 서비스 이전형태로 구분하여 사적이전행태에 대한 계층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적정수준의 공적이전규모와 공적 사회적안전망의 실효성을 판단하는데 적절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서론

정부의 공적 사회적안전망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인 주부, 노인, 아동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실업, 노령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하였다. 가스통 립링거(1926)는 이러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 양질의 노동력 재생산과 비 노동인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육, 교육, 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즉 공적 사회적안전망은 가족과 혈연 지연이나 종교와 자선기구가 담당해왔던 기능을 정부가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존재해 왔는데 이러한 의도는 각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사적 안전망의 역할에 의하여 그 규모와 범주가 차이를 보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공적 사회적안전망 기능에 비해 사적(私的)인 위기대응 방식이 더 보편화되어 나타나며 경제적 규모나 효과 면에서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홍경준(2002)은 이러한 사적 부문의 비대화를 정부의 성장 중심적인 산업화 과정과 그 외 부문에 대한 비공식적 연줄망의 대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행위의 공사 불비례 현상은 1997년 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

속된다. 손병돈(1999)과 강성진·전형준(2005)은 공적 사회안전망이 꾸준히 확대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 현상은 존재하였으며 오히려 사적이전을 받는 수혜가구의 비율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까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과 빈곤심화라는 경제지표의 변화와 함께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중산층의 분화와 각 계층들에게 있어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적이전의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10년 공적 안전망의 증가가 기존 사적이전의 행태에 미칠 영향은 공통된 사회적 위협에도 각각의 개인과 가구가 다른 반응을 보여주듯이 공적이전은 계층별로 상이한 사적이전행태를 가져온다. 다음 장에서는 사적이전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문제의식을 논하고자 한다.

II. 기존연구 검토

사적이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주목된 이유는 빈곤가구의 소득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공적이전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부터다. (손병돈 1999, 김진욱 2001, 김교성 2002) 사적이전에 대한 유형별 분석은 특성화된 가구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빈곤가구, 실업자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사적이전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손병돈 1999, 석재은 김태완 2000, 홍경준 2002, 김교성 2002, 윤홍식 2004)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에서 조사된 패널 자료와 횡단면 종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이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중 패널자료로는 노동패널자료와 대우패널자료가 주로 이용되었다. 특히 노동패널자료는 1차, 2차 조사시기를 기점으로 1998년도와 1999년도 분석대상으로 하여 경제위기 과정과 그 직후의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효과들을 살펴보곤 하였다. 이 시기 노동패널 자료는 부모-자식 간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 부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이전소득 항목에서 친지 친척으로부터의 지원금과 여타 특성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노동패널 4차 자료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부모-자식 간 경제교류에 대한 항목이 설문내용에 첨가되었으며 사적이전에 대한 연구는 더욱 면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표본가구의 차이는 다양한 분석대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정보와 비임금근로자의 지출 정보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와 더불어 자영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연구에 대한 종합 정보는 노동패널 자료로부터, 농촌 어촌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우패널자료로부터 연구자들의 자료 선택에 따른 연구대상의 차이는 사적이전에 연구의 축적을 가져왔다.

이러한 원 자료로부터 주로 다루어진 가구와 개인은 빈곤가구, 실업가구, 노인가구 및 여성가구 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구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와 한계들을 남겼다.

첫째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경제지표 가운데 특히 빈곤율에 대해서는 공적이전소득효과에 비해 사적이전소득효과가 크다. 빈곤율 감소 효과는 빈곤가구 내에서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빈곤선 바로 아래의 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극빈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적이전으로 인한 빈곤감소효과는 줄어들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빈곤 갭의 경우에는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여기도 했다. (김진욱, 김교성, 손병돈, 홍경준 같은 글)

둘째 빈곤가구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에서 거주하며,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사적이전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안중범, 구인회) 그러나 사적이전의 발생과 규모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역시 가구주의 소득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부모-자식간 소득 상관관계가 사적이전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실증결과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사적이전에 미치는 소득과 더불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과 그 외 요인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소득 정도가 사적이전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와 교환적 동기(exchange motive)로 일컬어 지는 이러한 이전 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사적이전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는 부양 이전의 수혜자로서 부모와 부양의 제공자로서 자식 간에는 각자의 소득이 이전을 증가시키는 교환적 동기와 감소시키는 이타적 동기를 결정하는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경향은 사적이전의 동기가 공적이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구축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Altonji 1992, Cox 1982, 1995, Kang, S. and Swada 2003)

또 하나의 연구 성과는 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손병돈(1998)은 가족 간 소득이전이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며 소득이전을 제공하는 이의 재산과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 간 문화적 요인들이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연립빈도와 장남여부 기혼자녀수, 부모 애경사등과 같은 가구 내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에 대한 한국적 이전 특성을 보여주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진재문(1999)의 연구결과가 있다. 그는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와 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효와 연줄망 이론을 통해 한국사회의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행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가구와 빈곤층과 실업자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적안전망의 영향과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주 원인으로 부각된 중산층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계층 이동과 계층 귀속의 추이를 보더라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를 보이는 것은 중산층인데 이들은 계층귀속이 강한 고소득층과 빈곤층에 비해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용수, 윤상하(2006)에 의하면 1999년과 2000년 당시 약 39.5% 수준에 달했던 중산

층의 소득점유율이 이후 점점 낮아져 2003년에는 36.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소득층은 51%에서 55%로, 빈곤층은 총가구소득의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4%에서 3.7% 내외 수준으로 미미하게 낮아졌다.

결국 이러한 중산층의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사적이전 특징의 변화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1998년 손병돈은 사적소득이전의 가장 큰 수혜계층은 중산층 가운데에서도 중하계층이고 고소득층 부모가 가장 적고 빈곤층이 그 다음으로 가장 적다라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이후 진행된 정부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대표되는 공적 사회안전망의 확대 속에서 중산층 및 계층분화에 따른 사적이전체계의 반응을 살펴 볼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노동패널(KLIPS) 4차 조사부터 체계화된 부모-자식 간 경제교류에 대한 자료의 축적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중심으로 사적이전과 계층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것이다.. 첫째 사적이전은 단지 부모-자식 간 이루어지는 현금과 소득 이전행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고용과 소득의 상실로 인해 초래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과 생활 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사적이전여부를 결정한다. 각각의 계층은 서로 다른 노후대비전략과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계층별로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항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산층의 경우 총소득항목에서 금융소득이나 이전소득이 다른 계층에 비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둘째 중산층 가운데서도 중상층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중 미래소비에 대한 선택여지가 크며 현재소비의 포기를 의미하는 금융소득의 영향이 사적이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적이전은 현금·현물이전형태와 서비스이전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가구주와 배우자 간 이전형태를 비교했을 때 배우자의 경우 서비스 이전이 현금·현물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²⁾

III. 분석 자료와 현황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9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전국도시 지역에서 추출된 가구와 개인의 인적특성과 소득 소비 저축과 고용, 직업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패널자료들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었던 표본 유지율도 5000가구 중 소멸가구를 제외하고 1999년 87.6%, 2003년 77.3%, 2006년 77.8%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안정된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되는 원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 가운데서도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에 대

2) Schoeni(1993)는 사적이전의 또 다른 방식으로 “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의 가족의 협력(helping)에 지출하는가?” 하는 설문조항을 이용하였다. 그는 인종 간 사적이전규모와 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흑인일수록 서비스나 시간(time)부양이 오히려 현금이전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설문응답이 이루어진 4차부터 9차까지 조사 자료이다. 이 시기 자료는 부모-자식 간 이루어지는 현금과 현물의 이전규모와 이전빈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왕래정도와 방문 회수 등으로 제시된 서비스 부양이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적이전의 두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서비스 부양이전은 현금·현물이전 형태에서 나타나지 않는 저소득계층의 이전 형태를 살펴보는데 유효한 내용이 될 것이다.

먼저 <표 1>에 의하면 중상층과 중하층의 비중이 분석대상 기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중하층의 경우에는 2001년 13.49%에서 2006년 8.56%로 감소한다. 이는 다른 계층의 계층 증감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중하층의 감소는 중상층과 중하층을 종합한 중산층 규모를 줄이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층별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소득층	503 (20.82)	797 (33.00)	871 (36.11)	867 (36.11)	814 (33.94)	852 (35.56)
중상층	1,145 (47.39)	1,097 (45.42)	1,037 (42.99)	999 (36.11)	1,409 (43.74)	1,021 (42.61)
중하층	326 (13.49)	249 (10.31)	202 (8.37)	215 (8.95)	236 (9.84)	205 (8.56)
빈곤층	442 (18.29)	272 (11.26)	302 (12.52)	320 (13.33)	299 (12.47)	318 (13.27)
전체	2,416 (100.00)	2,415 (100.00)	2,412 (100.00)	2,401 (100.00)	2,398 (100.00)	2,396 (100.00)

주 1)단위는 명, %

2)계층구분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 가운데 4차년도(2001)부터 9차년도(2006)사이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438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OECD기준에 따라 각년도 중위소득(median)을 100%로 놓고, 중위소득의 70-150%를 중상층으로, 150%이상을 고소득층으로, 50-70%를 중하층으로, 50%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자료(KLIPS) 4차- 6차에서 계산함.

이러한 계층구조의 변화를 통해 각 계층별 현물·현금이전의 현황들은 <표 2>와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4차부터 8차까지 조사된 부모-자식 간 이루어진 현물·현금이전에 대한 자료는 원 자료에는 경제적 교류여부라는 설문응답 형식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교류여부에는 부모와 자식 간 현금이전(cash transfer)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현물 보조에 대한 내용은 조사당시 가격으로 환산하여 설문에 응할 것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4차에서 8차까지 자료는 가구주와 배우자에 대한 질문에 각각 따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 금액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3) 정부에서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범위 안에 들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잠재적 빈곤층을 차상위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소득수준에 있으므로 사회보장수급에서도 제외되고 언제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을 구분해서 조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 자료는 8차까지 자료 중에서도 4차에서 6차까지 조사된 자료는 현금 이전과 현물이전을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로 나뉘어서 그 빈도수를 구분하였는데 다시 7차와 8차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주는 대상과 받는 대상 어느 경우라도 한번이라도 현금이전과 현물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경제교류여부로 기입된 현물·현금이전 빈도수에 포함을 시켰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7차와 8차에 조사된 경제교류여부와 액수에 대한 항목을 사용하면서 부모-자식 간 주는 이와 받는 이를 구분하여 이전액수를 계산하였다.

4차에서 9차까지 현금·현물이전에 대해 응답한 가구의 계층별 살펴보면,

<표 2> 계층별 현금·현물 가구 비율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소득층	39.89	40.14	41.54	41.51	41.35	41.87
중상층	50.07	47.95	45.45	44.69	45.20	44.79
중하층	8.93	7.39	7.14	6.95	6.53	6.33
빈곤층	5.11	4.52	5.87	6.85	6.92	7.01
응답자중비율(=있다)	64.18	70.17	74.35	77.54	76.48	79.74

주 : 1) 단위 명, ()은 %

2) 4차에서 9차 조사(KLIPS)까지 모두 응답하고 현금·현물 이전이 있다(없다는 제외)고 대답한 가구에 한정하여 계산함.

위의 표에서 응답자 중 현금·현물이전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지난 6년 동안 예상과는 달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상층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중하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다른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펴본 단순통계이므로 그 원인을 추론하기에 쉽지 않지만 중하층의 부모-자식 간 상호 의존체계는 다른 의존체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계층 간 현금·현물이전의 규모는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3> 계층별 시기별 현금·현물 이전 액 비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부모가 자식에게 (가구주)	고소득층	175.3	265.6	1109.1	212.4	199.0	376.8
	중상층	126.3	104.7	124.6	95.6	103.1	287.7
	중하층	138.2	77.3	104.5	119.0	198.0	351.8
	빈곤층	134.6	75.9	160.5	126.8	118.5	214.4
자식이 부모에게 (가구주)	고소득층	172.4	182.73	186.91	248.19	200.46	225.51
	중상층	98.96	104.7	98.11	107.8	101.91	107.07
	중하층	75.42	114.41	62.46	76.35	69.31	95.16
	빈곤층	79.97	41.72	69.34	71.25	66	68.81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	고소득층	86	147.58	104.05	324.71	144.5	109.11
	중상층	102.14	66.25	61.71	61.06	103.25	93.28
	중하층	43.94	114.64	66.66	83.13	69.75	69.5
	빈곤층	63.84	40.83	125.07	81.42	124.21	104.70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자)	고소득층	124.11	73.04	92.8	82.81	100.22	37.28
	중상층	33.48	54.03	59.2	46.24	45.44	22.75
	중하층	43.14	64.5	28.35	28.86	35.38	11
	빈곤층	33.1	54.29	29.2	42.76	32.28	19.53

주 : 각 년도 월평균 이전액, 단위는 만원

자료 : KLIPS 4차-9차 원자료에서 부모-자식간 경제교류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계산함.

또한 9차 자료부터는 설문대상과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여 조사대상안에 현금·현물이전을 하는 자식가구뿐만 아니라 노부모 가구의 응답도 설문내용에 첨가하여 상세히 조사되고 있다. 즉 9차 자료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와의 현물·현금이전과 서비스 부양이전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설문내용도 더욱 풍부하게 조사되었다. 예전 자료에는 함께 기록되어 확인되지 않은 현금이전과 현물이전의 규모를 9차 년도부터는 각각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현금·현물이전에 대한 주관적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되어 사적이전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에 해당하는 개인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가구주의 연령이 25세에서 65세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즉 분석대상인 가구는 노부모 가구를 제외한 평균연령 46세의 가구주 가구에 해당된 사적이전의 정보만 활용한다.

년도 별 방문회수의 현황은 <표 4>에서 확인 되는 바와 같이 평균 76% 정도가 년 1회에서 5회 사이를 부모-자식 간 왕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문으로 서비스 부양에 관한 주관적 의식을 보여주는 질문이 왕래정도에 대한 것이다.

<표 4> 2001년,2003년,2005년 부모-자식 간 방문회수 비교

방문회수(년)	2001	2003	2005
1회~5회	620(77.21)	784(75.9)	807(76.65)
6회~10회	219(20.61)	243(23.52)	238(22.58)
11회~20회	21(1.97)	6(0.58)	8(0.75)
전체(명)	1,060	1,033	1,053

주 : 단위는 명, ()은 %

자료 : KLIPS 4차-9차 조사자료

얼마나 자주 찾아 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자주와 가끔이나 거의라고 응답할 수 있는데, 분석에는 <표 5>에서처럼 가끔이나 거의를 0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층별로 가구주와 배우자를 나눠서 비교해 보면 가구주는 '자주'에 대한 응답이 높았던 반면 배우자는 거의나 가끔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구주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계층별로 살펴봐도 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설문문항이 단지 주관적 판단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위의 <표 4>에서 기록한 회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구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실제 사적이전빈도와 사적이전 요구와 필요에 대한 설문은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주관적 느낌과 실제 빈도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표 5> 계층별 왕래정도 비교

	가구주		배우자	
	자주왕래 한다	거의 혹은 가끔 왕래 한다	자주왕래 한다	거의 혹은 가끔 왕래 한다
고소득층	60.41	39.59	58.77	41.23
중상층	58.13	41.87	50.29	49.71
중하층	54.97	45.03	47.12	52.88
빈곤층	52.45	47.55	41.67	58.33
전체	71.01	28.99	59.38	40.62

주 : 단위 %

자료 : KLIPS 4차-9차 원자료.

VI.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 부양이전으로 구분되는 사적이전과 계층별 특성으로 분석도구로 사용되는 실증모형은 이원로짓모형 분석이다(Binary Logit Model Analysis)

첫 번째 분석모형에서는 계층별 구분 없이 가구주와 배우자의 현금·현물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25세에서 65세 이하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로 응답한 개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가구는 노부모 가구를 제외한 자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주와 배우자 한명이나 혹은 둘 모두에게 부모-자식 간 현금·현물이전이 있느냐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현금과 현물이전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현물이전에 대한 이전여부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분석모형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첫 번째 분석모형과 동일하나 계층별로 한정하여 현금·현물이전여부를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이러한 가구주와 배우자의 현금·현물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가구주의 인적특성에 대한 내용은 주로 가구주의 연령, 성별, 거주 지역, 학력에 대한 것들을 연속형 혹은 더미 변수화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령은 따로 범주화하지 않고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고 성별은 남성을,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학력은 중졸학력을 기준변수로 이용하였다. 두 번째는 소득/자산/지출 특성변수들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의 소득과 수입에 대한 것은 각각 월평균 액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비임금근로자 범주에 속하는 상용직이외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불완전 고용상태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항목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항목을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현금·현물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간주된 것은 노후대비와 관련된 특성변수들이다. 현재 가계경제활동 수준과 미래노후대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항목을 노후대비특성 항목에 포함 시켰다. 생활비지출은 현재소비에 지출되는 부분이고 그 외 저축액과 개인연금등은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로그불변 값을 이용하였고, 입주형태는 자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봄으로써 주택구입에 현재 지출되고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현금·현물이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노후대비 관련 특성변수들 가운데에서 나머지는 이전소득여부와 개인연금액에 대한 것이다. 이전소득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정부보조 이전액, 친지 친척보조 이전액, 사회단체 이전액이 그것이다.

이전소득 항목에서는 정부보조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는 두 번째 모형에서는 정부보조 이전액과는 상관성이 낮은 고소득층이나 중상층에게도 이전소득은 영향을 미

친다. 즉 반드시 이전소득 항목을 정부보조금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사적이전 중에서도 부모-자식 외의 현금·현물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가구주 현금·현물이전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비스이전특성변수들이다. 이 항목에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그들 부모와 왕래하는 정도에 대한 설문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서비스 이전형태가 현금·현물이전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계수값의 부호와 크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부호가 정(+)이면 현금·현물이전형태와 서비스부양형태는 보완관계로서 볼 수 있지만 가구주와 배우자의 서비스 이전이 현금·현물이전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배우자의 서비스 이전이 부족한 배우자 부모와의 현금·현물이전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6> 변수설명

변수특성	변수이름	변수 정의
설 명 변 수		
가구주인적특성	연령	25세에서 65세 이하 연령의 가구주/연속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거주지역	서울·경기 거주=1, 서울·경기 이외 거주=0
	초졸학력	졸업=1, 졸업 안함=0 * 학력 값 이하 동일
	중졸학력	
	고졸학력	
	(전문)대졸이상학력	
	일자리형태	임금근로자=1, 비임금근로자=0
소득/자산/지출특성	임금근로자 소득	로그/연속변수[월평균]
	비임금근로자 소득	로그/연속변수[월평균]
	자영업자소득	로그/연속변수[월평균]
	가구근로소득액수	로그불변/연속변수 * 불변값은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기준
	가구금융소득액수	로그불변/연속변수
	가구부동산소득액수	로그불변/연속변수
노후대비관련특성	생활비지출	(=생활비지출/총소득)/로그불변/연속변수
	저축액	(=저축액/총소득)/로그불변/연속변수
	이전소득유무	있다=1, 없다=0
	개인연금유무	있다=1, 없다=0
	입주형태 자가여부	자가 =1, 월세나 전세=0
서비스부양이전특성	가구주왕래정도	자주=1, 거의나 가끔=0
	배우자왕래정도	자주=1, 거의나 가끔=0
종 속 변 수		
	가구현금현물이전여부	(가구주와 배우자)부모-자식 간 현금·현물 경제교류여부 있다 = 1, 없다 = 0

V. 분석결과

1. 서비스부양이전형태가 현금·현물이전형태에 미치는 영향(전체)

첫 번째 분석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부모-자식 간 현금·현물이전이 발생할 확률만 고려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그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로짓모형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7>를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커질수록 현금·현물이전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지역

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가구주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에 비해 이전 확률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 경기 지역 가구주의 소득수준이 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가구주의 연령 또한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 경기지역의 현금·현물이전확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의한 통계 값을 갖지는 못하였다. 역시 유의한 값을 갖지는 못하였지만 아래 <표 11>과 <표 12>의 중하층과 빈곤층은 오히려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할 수록 이전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학력은 우선 기준변수인 (전문)대졸 학력의 가구주에 비해 그 이하의 학력의 가구들의 현금·현물이전 여부는 부(-)의 계수 값을 갖는 중졸과 고졸 학력에서 중졸만 유의한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졸과 고졸학력의 가구주들이 대졸 이상 학력 가구주에 비해 사적이전이 일어날 확률이 초졸은 0,225만큼 증가하지만, 중졸과 고졸은 각각 0.414와 0.0478씩 감소한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수입에 대한 계수값들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증가할 수록 임금근로자의 그것보다 현금·현물이전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가구와 개인의 소득의 증가는 현금·현물이전이 나타날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금융소득은 그렇지 않다. 이는 두 번째 계층 간 모형 분석 가운데 중상층의 계수값과 같은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생활비 지출비중이 많을수록 이전확률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저축비중은 오히려 현금·현물이전의 발생 확률 또한 증가시키므로 저축과 사적이전은 가계내에서 상호 보완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다.

노후대비특성 변수들은 생활비지출에 대한 부분에 제하고는 모두 현금·현물이전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 즉 저축비중이 크고, 자가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전소득이 있으며, 개인연금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적이전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과 소위 부모-자식 이외의 친척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이전소득여부는 현금·현물이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살펴 볼 때엔 저축과 마찬가지로 현금·현물이전에 정(+)의 영향을 주는데 계층별로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비교해 보면 중상층과 고소득은 개인연금이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 응답자의 20~30%인데 중하층과 빈곤층을 살펴보면 양 계층 모두 10%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현금·현물이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서비스형태 사적이전과 배우자의 부모-자식간 현금·현물이전이 종속 변수인 가구주 부모-자식간 현금·현물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각각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왕래정도가 자주 일어나는 가구주의 경우 부모-자식간 현금·현물이전 또한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배우자의 현금·현물이전에 대한 계수값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서비스 이전은 현금·현물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주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 3>에서도 확인되듯이 현금·현물 이전액이 가구주에 비해 아주 작은 값을 갖는 데에 대한 보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부양이전 관계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전체)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가구주연령	1.09***		1.09***	
가구주성별	.0589		.0782	
가구주거주지역	.0513		.0637	
가구주초졸학력	.0225		.00549	
가구주중졸학력	-.414**		-.444**	
가구주고졸학력	-.0478		-.0581	
일자리형태	.349	.306	-.0184	-.0529
자영업자소득	.0565	.0564		
비임금근로자소득	.159**	.156**		
가구근로소득	.0281	.0375		
가구금융소득	-.0114	-.00127		
가구부동산소득	.0642	.077		
생활비지출비중	-1.51**	-1.09*	-1.51**	-1.03
저축비중	1.47***	1.42***	1.52***	1.5***
입주형태	.0822	.177*	.103	.204*
이전소득유무	2.31***	2.27***	2.33***	2.29***
개인연금가입여부	.214*	.217*	.222*	.233*
가구주왕래정도	.465***	.435***	.463***	.437***
배우자왕래정도	1.37***	1.35***	1.35***	1.34***
상수항	-4.27***	-5.26	-3.73***	.0387
r2_p	.184	.179	.181	.176
chi2	768	747	754	732
N	4101	4102	4101	4102

주 : * p<0.05; ** p<0.01; *** p<0.001

2. 현금·현물이전형태에 미치는 계층별 차이

가. 고소득층의 사적이전

고소득층의 사적이전(현금과 현물이전)은 빈곤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이 나타날 확률이 커진다. 가구주의 연령을 25세에서 60세까지로 한정하였으므로 자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 가구의 연령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주의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전이 나타날 확률이 더 커지며 학력은 유의한 통계치를 보인 중졸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전문) 대졸 이상의 사람에 비해 이전확률은 더 적다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정부보조금, 사회단체 지원금, 부모 자식외 친지나 친척으로 받는 도움이 있는데, 고소득층은 정부보조나 사회단체 지원 보다 세 번째 항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종합적인 부모 자식외 친지에 이르기까지 고소득층의 사적이전은 여타 계층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연금액이 존재할수록 이전 발생에 정

(+)의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저축비중도 클수록 이전발생도 커진다. 특히 저축의 목적에 대한 주관적 의도를 살펴보게 되면 아래 <표 8>과 같은 계층별 차이를 보인다. 설문응답에서 1순위와 2순위로 저축의 목적을 응답하라는 설문에서 전체 가구중 37.5%는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응답하였는데 고소득층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나 주택마련, 자녀교육비등의 목적보다 노후대비에 답한 가구가 여타 계층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즉 저축과 부모 자식간 이전이나 친지로부터의 이전, 개인연금등 고소득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계층별 저축목적

	노후대비를 위한 것이다		노후대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고소득층	1,102	41.48	1,555	58.52
중상층	1,296	36.88	2,218	63.12
중하층	181	30.42	414	69.58
빈곤층	167	30.09	388	69.91
전체	2,746	37.51	4,575	62.49

이외에도 현물 현금이전이 아닌 서비스이전형태를 보더라도 가구주나 배우자 모두 방문과 왕래가 자주 발생할 수록 현금 현물이전이 나타날 확률이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부양이전 관계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고소득층)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가구주연령	1.31*		1.37*	
가구주성별	-1.78		-1.78	
가구주거주지역	.0788		.0719	
가구주초졸학력	.47		.506	
가구주중졸학력	-.723*		-.746*	
가구주고졸학력	.172		.156	
일자리형태	.00931	.138	-.0609	-.0261
자영업자소득	-.00987	.00759		
비임금근로자소득	.11	.124		
가구근로소득	-.00291	-.0129		
가구금융소득	.037	.0518		
가구부동산소득	.0421	.0441		
생활비지출비중	-1.55	-.273	-1.5	-.236
저축비중	1.38**	1.34**	1.49**	1.47**
입주형태	.157	.197	.179	.23
이전소득유무	2.52***	2.48***	2.58***	2.53***
개인연금가입여부	.0542	.0374	.0617	.053
가구주왕래정도	.476**	.416**	.482**	.427**
배우자왕래정도	1.62***	1.59***	1.58***	1.55***
상수향	-2.51	-.093	-2.72	-.0875
r2_p	.191	.178	.187	.174
chi2	251	234	246	228
N	1691	1691	1691	1691

주 : * p<0.05; ** p<0.01; *** p<0.001

나. 중상층과 사적이전

중상층 역시 고소득층과 유사한 사적이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들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한 계수값이 유의하게 나타남과 더불어 현금·현물이전과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소득항목을 살펴보면 은행 금융기관의 이자 투자 소득이나 주식 채권의 매매차익 그리고 배당금등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사적이전 외 금융거래가 활발한 중상층일수록 부모-자식 간 현금·현물이전의 발생 확률은 줄어든다. 이는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의 여지를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확보하고 있는 중상층의 경우에는 중상층 이하의 계층보다 위험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노후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투자해야 주택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상층은 현재 자가 비율과 생활비 지출은 중상층 이하 계층에 비해 높으므로 사적이전에 부(-)의 영향을 주고, 현재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소비를 위한 금융자산 축적률이 높은 중상층은 사적이전에 정(+)을 영향을 미친다..

<표 10>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부양이전 관계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중상층)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가구주연령	.559		.484	
가구주성별	.0943		.179	
가구주거주지역	.0133		-.00017	
가구주초졸학력	.656		.686*	
가구주중졸학력	-.188		-.166	
가구주고졸학력	.00895		.0241	
일자리형태	.4	.353	.16	.125
자영업자소득	.0287	.0277		
비임금근로자소득	.12	.118		
가구근로소득	-.0663	-.0576		
가구금융소득	-.115*	-.118**		
가구부동산소득	.0362	.0463		
생활비지출비중	-.292	-.0415	-.628	-.36
저축비중	1.13**	1.1**	1.04**	1.02**
입주형태	-.133	-.0895	-.145	-.104
이전소득유무	2.59***	2.55***	2.61***	2.57***
개인연금가입여부	.162	.148	.128	.115
가구주왕래정도	.453***	.427***	.438***	.413***
배우자왕래정도	1.23***	1.22***	1.21***	1.2***
상수항	-2.19	-.194	-2.03	-.178
r ² _p	.176	.172	.171	.167
chi ²	386	377	374	365
N	1992	1992	1992	1992

주 : * p<0.05; ** p<0.01; *** p<0.001

다. 중하층과 사적이전

중하층은 가구주 연령이 많고 남성이 가구주이며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할 수록 이전확률이 커지는데, 유의한 값을 갖지는 않으나 학력은 초졸 학력만 (전문)대졸 가구에 비해 이전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 중 저축 비중과 이전소득유무는 <표 7>에서 전체 가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중하층은 정부의 기초보호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매우 불안정하고 빈곤계층으로 계층이동 할 확률이 매우 높은 계층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공적지원과 친지 친척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전소득유무 값이 정(+)으로 나오고 유의성도 크다는 점은 사적인 지원과 공적지원이 열악한 중하층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왕래 정도에 대한 계수값을 계층별로 비교해 봤을 때 모두 정(+)의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중하층의 경우 연령, 이전소득유무와 더불어 매우 높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의 서비스부양이전은 여느 계층과 비슷하게 가구주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부양이전 관계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중하층)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가구주연령	2.4*		2.39*	
가구주성별	.66		.583	
가구주거주지역	.0394		-.0333	
가구주초졸학력	-.196		-.229	
가구주중졸학력	.522		.535	
가구주고졸학력	.36		.353	
일자리형태	.556	.436	-.269	-.418
자영업자소득	.221	.238		
비임금근로자소득	.0974	.0687		
가구근로소득	-.0989	-.0811		
가구금융소득	-.238	-.166		
가구부동산소득	.0107	.122		
생활비지출비중	.0478	.368	-.229	.274
저축비중	1.73*	1.02	1.61*	.934
입주형태	.212	.462	.156	.438
이전소득유무	2.36***	2.25***	2.25***	2.14***
개인연금가입여부	.241	.26	.27	.301
가구주왕래정도	.703*	.547	.658*	.526
배우자왕래정도	1.62***	1.47***	1.56***	1.41***
상수항	-11.3**	-1.47	-10.7**	-1.04
r ² _p	.234	.213	.223	.2
chi ²	90.2	82.2	85.6	77.3
N	297	298	297	298

주 : * p<0.05; ** p<0.01; *** p<0.001

라. 빈곤층과 사적이전

빈곤층은 모형의 적합도를 표현하는 R² 값은 유의하나 설명변수들의 p값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며 obs의 수가 너무 적어 설명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 빈곤층에 대한 결과해석은 이러한 모형의 한계점들을 감안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는 몇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은 다른 계층들과는 달리 오히려 연령의 증가가 오히려 현금·현물이전이 나타날 확률은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축비중도 역시 다른 계층의 가구들이 유의하고 미치는 영향도 크게 나타난데 비해 빈곤층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왕래정도는 오히려 현금·현물이전과 보완적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하층의 유의한 결과 값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의한 값으로 나온 일자리 형태와 관련해서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일 수록 이전확률은 커진다는 결론은 보여주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구성에는 근로소득을 받는 상용직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들이 포함 되어 있다. 그렇다면 빈곤층의 종사상지위나 임금수준으로 판단할 때 임금근로자인 빈곤층은 빈곤층 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상태가 다소 안정된 가구를 의미한다. 즉 빈곤층 내 현금·현물

이전이 임금근로자일 수록 높다는 점은 고용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외 서비스 이전형태인 왕래정도는 배우자의 경우만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금·현물이전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2>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부양이전 관계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빈곤층)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가구주연령	-.477		-.00135	
가구주성별	1.12		.748	
가구주거주지역	-.836		-.716	
가구주초졸학력	-.189		-.436	
가구주중졸학력	-.68		-.508	
가구주고졸학력	.987		.854	
일자리형태	-.457	-.601	-.927	-.976*
자영업자소득	.063	.0235		
비임금근로자소득	.236	.313*		
가구근로소득	.286	.313*		
가구금융소득				
가구부동산소득				
생활비지출비중	.663	.509	.263	.437
저축비중	.189	.0363	.528	.289
입주형태	.796	.663	.854	.666
이전소득유무	2.34**	1.83**	1.93**	1.57**
개인연금가입여부	3.25**	2.81*	3.11**	2.71*
가구주왕래정도	.676	.533	.421	.371
배우자왕래정도	.297	.762	.726	1.08*
상수항	-2.71	-3.13	-1.6	-.816
r2_p	.303	.24	.268	.215
chi2	44.1	34.9	41.1	33.5
N	109	109	121	121

주 : * p<0.05; ** p<0.01; *** p<0.001

VI. 결론

한국의 사적이전을 살펴보면 있어 계층적 특징을 고려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경제적 위기와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학적 충격들은 위험분산(risk-sharing)과 위험대처(risk-coping)수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비해 불안정한 사적이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중산층과 빈곤층에 더욱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계층이동이 심한 중산층은 양극화 심화와 빈곤율 증가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경우에는 계층귀속의 비중이 매우 높은 계층으로

다가 올 경제 구조적 변화에 덜 민감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계층별로 반응하게 되는 경제적 충격의 차이는 중산층내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셋째, 공적이전은 향후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적이전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현존하는 모든 계층의 사적이전이 획일적이지 않듯이 공적이전 또한 계층 간 존재하는 사적 안전망의 효과를 감압하여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인과 가구의 사적이전과 계층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적이전의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판단과 공적이전제도에 의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성진·전형준 (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경제』, 제10권 제1호, pp.23-46.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pp.113-149.
- 김진욱 (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0권, pp.171-195.
- 김희삼·안종범 (2006), 「인구구조고령화와 소득이전」, 한국개발연구원.
- 문형표 (200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 손병돈 (1998), 「가족간 소득이전의 경제적 계층별 분배」, 『사회보장연구』, 제14권 1호. p.157-187.
-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 39 권, pp157-179.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홍식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pp5-27.
- 홍경준 (200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pp61-85.
- Altonji, J. F. Hayashi and L.J.Kotikoff. (1992), "Is extended Family altruistically linked? Direct Tests using Micro Data, " *American Economic Review*, 82(5), pp1177-1198.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pp1063-1093.
- Cox D. and E. Jimenez. (1992), "Social Security and Private Transfers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case of Peru," *World Bank Economic Review*, 6(1), pp155-169.
- Cox, D. and G. Jakubson, (1995),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7(1), pp129-167.
- Kang, S. and Y. Swada. (2003), "Are Private Transfers Altruistically Motivated? The Case of Korea before and during the Financial Crisis," *Developing Economies*, 41(4), pp484-501.
- Rimlinger, G. V. (1926),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출판사(1999).
- Schoeni, R. F. (1993), "Private Interhousehold Transfers of Money and Time : New Empirical Evidence" , Labor and Population Program Working Paper series 93-26.